삼화페인트, DPI도 따라잡나?

7월 매출액 148억원으로 11% 성장 … 건설화학은 제쳐

페인트 전문 생산기업인 삼화페인트(대표 김장연)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7월 한달 매출액이 148억원에 달해 2001년 7월 133억원보다 11% 이상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경상이익도 5억8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삼화페인트는 2001년 처음으로 제비표 페인트로 유명한 건설화학을 제치고 매출액 기준 3위로 올라섰으며, 이제는 오랜기간 2위를 수성해 온 노루표 페인트의 DPI도 넘볼 태세이다.

삼화페인트는 2002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761억원보다 무려 20% 증가한 910억원에 달했다. 건설화학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891억원을 올렸지만 삼화페인트의 상승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화페인트는 2001년 3월부터 가동률 상승과 적정 재고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뉘어 있던 생산공정을 일년내내 일정하게 만들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이익률을 극대화한 것이 경상이익 상승에 큰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업용 페인트와 건축용 도료, 선박용 도료 등 각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DPI(대표 한영재)는 7월 매출액이 165억원으로 2001년 7월 169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각각 10억원씩을 올려 2001년 7월 각각 8억원과 9억원보다는 늘어났다.

DPI는 페인트기업으로서는 드물게 2002년 상반기 매출액 1023억원과 경상이익 111억원을 달성해 2자리수의 경상이익률을 나타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8>